

제4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타지키스탄 국립 외국어 대학교	성명	미르조예프 도바르	학년	5	생년월일	1987년 05월 19일
----	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-

100

200

300

400

500

어렸을 때 통역가와 번역가가 되고
 싶었다. 그래서 내가 대학교에 입학하
 고자 시골에서 수도로 왔다. 하거만
 영어과에 입학하려면 돈이 있어야 했다.
 내가 입학할 수 없었다. 왜냐하면 우
 리 가족 형편으로 입학할 수 없었기
 때문이다. 또 러시아에 가서 돈을 벌
 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었다. 러시아
 에도 갈 수 없었다. 러시아에 갈 돈
 이 없었다.
 어느 날이 있다. 어떻게 할까? 라고
 고민을 하다가 밖으로 나갔다. 도시에
 온지 얼마 안되어서 아무것도 몰랐다.
 그냥 ~~물어보고~~ 사람들에게한테 물어 보면서
 보스를 타며 걷기도 하며 구경했다.
 한참 구경을 하다가 보니 몸이 으스스스스
 피곤했다. 보스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
 는데 주머니를 찾아 보니 돈이 하나도
 없었다. 소매기를 당한 것 같았다.
 정말 그랬다. 다 찾아봐도 없었다.
 이제 길도 모르고 돈도 없었다. 뭣
 또 사람들을한테 물어 보고 걸어서 집에
 가려고 했다. 길을 가다가 피곤해서
 쉬고 싶었다. 나는 참간 쉬다가 하나
 광고를 봤다. 광고를 자세히 읽어 보

제4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타지키스탄 국립외국어대학교	성명	피르조예프 도바르	학년	5	생년월일	1987년 05월 17일
----	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-

100

200

300

400

500

나 입학생을 모집한다고 적혀 있었다.
 한국어를 타지키스탄 국립외국어대학교
 에서 배울 수 있다. 내가 궁금하기
 시작했다. '한번' 알아보고자 전화번호를
 받았다. 그러다가 전화를 한 다음에
 조건이 우리 가족 형편으로 는 괜찮았기
 때문에 결국 한국어과에 입학했다. 처
 음에 내가 무언히 보고 입학되어서 잘
 공부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다.
 사실은 그랬다. 너무 어려웠다. 포기
 할 만큼 두려웠다. 왜냐하면 우리 가
 족이 있던 돈을 등록으로 냈기 때문이
 다. 열심히 공부할 수 밖에 없었다.
 또 시간이 지나서 잘 공부하는 학생들
 한테 장학금과 등록금을 주겠다고 한다가
 에 내 자신과 열심히 배운다고 도전들
 했다. 차분 공복에 몰두해서 나도 모
 르게 장학금과 등록금을 받게 되었다.
 이제 한국어에 관심이 많아졌다.
 또한 한국에 가게 되었다 한국에 가서
 한국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와
 역사를 배울 수 있었다.
 한국에 갔는데 기숙사에서 살았다.
 아침과 저녁 밥을 기숙사에서 즐기만
 점심을 내 생활실에서 먹어야 했다.

제4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타지키스탄 국립 외국어 대학교	성명	미르 조예프 도바르	학년	5	생년월일	1987년 05월 17일
----	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-

100

200

300

400

500

그 러 다 가 거 울 이 되 자 필 요 한 것 을 사
 야 했 다 . 내 가 아 껴 서 접 식 을 먹 어
 온 돈 이 다 떨어 졌 다 . 배 가 한 톨 도
 없 었 다 . 내 생 활 을 듣고 여 러 분 들 이
 돕 기 시 작 했 다 . 나 는 돈 을 받아 서 열
 심 히 배 물 수 있 었 다 . 만 약 에 그 분 들
 이 없 었 다 면 내 가 공 부 를 그 만 하 고 . 고
 향 에 갈 수 있 었 다 . 또 시 간 이 거 나
 우 리 학 과 학 장 님 께 서 “ 사 랑 을 나 눔 ”
 이 라 는 재 단 에 서 나 를 신 청 해 주 시 고
 밥 을 먹 을 수 있 는 구 품 을 받 게 하 셧
 다 . 그 분 들 의 도 움 을 받 으 면 서 내 가
 조 업 할 수 있 었 다 .
 내 가 감 사 하 는 길 이 있 다 . 그 길 이
 내 인 생 을 바 꾸 었 다 . 왜 나 하 면 내 가
 한 국 어 를 배 우 고 생 공 을 하 고 있 기 때
 문 이 다 . 사 실 한 국 에 서 조 업 한 것 은
 나 한 테 큰 성 공 이 다 .
 또 길 씌 나 를 한 국 에 ~~개~~ 환 환 한
 분 들 과 뵈 게 했 다 . 나 도 장 래 에 혼 자
 못 하 따 라 도 좋 은 친 구 들 을 모 아 께 감 학
 재 단 에 나 께 부 재 단 을 만 들 겠 다 . 만 약 에
 내 가 다 른 길 로 갔 으 면 여 기 가 지 올
 수 없 었 다 . 그 길 이 내 바 꾸 었 다 고 생
 각 한 다 . 고 향 에 있 을 때 하 루 에 한 바

제4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타지키스탄 국립 외국어 대학교	성명	미르조예프 도바르	학년	5	생년월일	1987년 05월 17일
----	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-

안 가 면 불 안 하 고 밤 에 잠 이 안 몬 다.
그 길 에 간 것 을 항상 하 나 님 께 곁 사
하 겠 다 . 어 제 와 오 늘 도 생 각 이 나 서
마 음 이 불 안 하 다 . 배 려 가 고 싶 다 .

100

200

300

400

500